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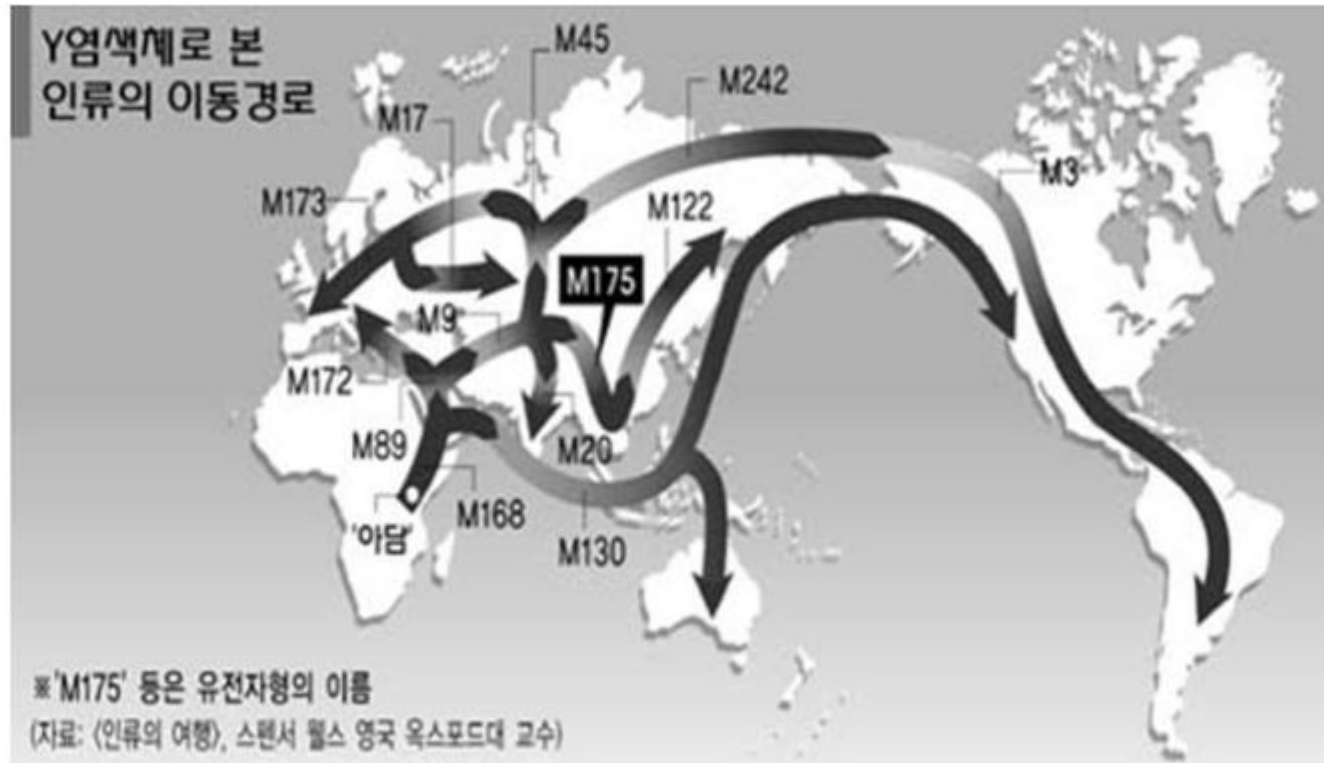


KBS 파노라마
코리안 이브



가덕도 유골서 7천년전 '유럽형 유전자' 발견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KBS 파노라마 코리안 이브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기후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드리아스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 ScienceTimes

갑작스런 기후변화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실제 '영거 드리아스'(Younger Dryas stadial) 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드리아스기는 3기로 나눈다. 오래된 순서로부터
최고기(BC 14000 ~ BC 10400),
고기(BC 10000 ~ BC 9800),
신기(BC 9000 ~ BC 8200) : 영거 드리아스

등이다. 최고기와 고기에는 여름 기온이 약 섭씨 8~9도일 정도로 한랭하고, 신기부터는 섭씨 11도 이상으로 온난해진다.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5000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지역에서 발견
샘플 조사 결과
9000~2만 년 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5.4.3 KBS 뉴스광장



카랄의 원형 광장 유적지(출처: <http://www.perubuddy.com>)

고대 후기(Arcaico Tardío 기원전 3000-1500년)에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 문명의 흔적이 안데스 최초의 카랄 유적지다. 카랄의 규모는 0.66km 정도로, 삼천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했다고 본다.

Ruth Shady가 카랄에서 약 오천 년 이상 된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 및 기타 주거지 유적이 있는 전형적인 도시를 발굴하게 되었다. 피라미드 또한 대형으로, 면적이 축구장 네 개 정도의 크기, 높이는 18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였다. 이 피라미드가 건설될 즈음 이집트에도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있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덤이라면, 카랄의 피라미드는 신전이자 도시의 상징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다르다. 이 점은 라틴아메리카 피라미드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강성식, 서울대강사)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 제주 돌하르방, 볼리비아 티와나쿠 석상, 칠레 서쪽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인도네시아 발리 베사키사원 석상
- 술라웨시군도 셀레베스섬 석상
- 바닷길로 2만5000km나 떨어진 곳의 석상들이 이상하게 닮아 있다.
- 시카고대 로버트 쇼크 1만년전 주장

• 기원전 1만5000년에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고, 기원전 9300년에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고고천문학자 닐 스티데는 기원전 1만년이라고 주장했다. 네발리 코리의 신전은 티와나쿠 석상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계 판단

와나코 유적 연구에 평생을 바친 오스트리아 태생의 고고학자 아르투르 포스난스키(라파스대 학 교수) 1만 5000년 전에 건설되어 1만1000년경 자연의 대변동으로 멸망했다 주장

'엘 프레일레'라고 불리는 이 돌 조각상은 제주 돌하르방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눈에는 고글을 쓴 것 같은 모습이였다. 잉카는 티와나코를 선대문명, 다시 말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맹성렬(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신동아, 2013)



터키 네발리 코리 돌기둥 석상(위), 볼리비아 티와나쿠 석상 조각



1 볼리비아 티와나쿠의 엘 프레일레 2 제주도 돌하르방 3 4 발리 석상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요나구니지마 해저유적 (与那国島海底遺跡)

Yonaguni underwater monument

현재는 기원전 8000년 정도의 인공 유적이라는 설과 자연적인 조수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이라는 설이 맞서고 있다



제주 고산리 토기

1990년대 초반 이곳에서 돌을무늬(용기문) 토기가 한 점 나왔다. 연대를 측정해 보니 약 BC 8000년 전으로 올라갔다. 약 1만년 전에 조상님이 쓰던 그릇이지만 이 고산리 토기의 상단 문양, 그러니까 가로로 쳐진 세 개의 줄무늬는 신라 토기에도 등장했다. 팔수록 수수께끼가 나오는 곳이 있다. 제주도 고산리가 그렇다.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군산서부 해역은 최저 46m에서 최고 92m의 수심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수심은 약 78m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해저지형은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조류방향과 동일하게 발달한 사퇴(sand ridge)가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심 70m 해저에서 모래톱이 아주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및 남해는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육지면적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345,000km²

황해는 수심 80m 미만의 얕은 바다로 전역이 대륙붕에 속해 있다

대륙붕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해역은 북해를 포함한 영국 주변 지역,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 주변의 남지나해·자바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섬 사이의 아라푸라해(Arapura Sea), 서해와 동지나 해역, 베링해의 동반부 지역,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해안 지역, 북극해의 유라시아대륙 연변부 지역들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륙붕(大陸棚))]

국립해양조사원, 서해 대륙붕 해저지형 비밀 밝히다. 2016.1.18



12000년전~8000년전까지 해수면



5000년전~현재까지 해수면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사마 천(司馬 遷) /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

自威宣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州。此三神山者，其傳在渤海中，去人不遠，患且至，則船風引而去。蓋嘗有至者，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其物禽獸盡白而黃金銀爲宮闕。未至望之如雲，及到三神山反居水下。臨之風輒引去，終莫能至云。世主莫不甘心焉。及至秦始皇并天下，至海上，則方士言之不可勝數。始皇自以爲至海上而恐不及矣，使人乃齋童男女入海求之。船交海中，皆以風爲解，曰未能至，望見之焉。其明年，始皇復游海上，至琅邪，過恒山，從上黨歸。後三年，游碣石，考人海方士，從上郡歸。後五年，始皇南至湘山，遂登會稽，並海上，冀遇海中三神山之奇藥。不得，還至沙丘崩。

제나라의 위왕과 선왕, 연나라의 소왕(昭王) 이래로 사람을 바다로 파견하여 봉래, 방장, 영주(蓬萊, 方丈, 瀛洲)를 찾도록 하는 일이 잦아졌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삼신산(三神山)은 발해(渤海) 중에 있어 그 길이 멀지 않았으나, 선인(仙人)들은 배가 도착하는 것을 걱정하여 곧 바람을 일으켜 배를 멀리 보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십주기(十州記)에서 기록한 "물살이 크고 거칠며 무서운 파도가 친다."한 것과 일치한다.

발해는 원래 '빨발'을 뜻하는 싯담어이다. 동국정운에 기록한 발(渤)자의 정확한 발음은 '빨'이다. 즉, 갯빨을 말한다. 또한 싯담어 사전에는 대평원의 뜻도 있다.



〈그림 3〉 중국 사서(史書)에서 발해 동쪽에 있다고 한 삼신산. 하늘에 천제 지내던 감비고차(강화도)가 방장이었고, 오름이 많은 제주도가 영주였고, 한반도가 마고지나(麻姑之那)였다. 마고지나는 마고의 나라라는 뜻이다.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고부양

우규일, 「耽羅建國의 主人公-三姓穴 三神人の 正體, 日本國(碧浪國) 三公主와의 만남」, 한중친 선협회 중국서북문화국제논단 발표자료, 2009, 한중친 선협회 중국서북문화국제논단 발표자료, 2009



<그림 1> 산둥반도와 중국 동해안의 지형 변화(기원전(BC) 5500-BC 1300). 황색은 후에 간척지. BC 5500년경 산둥 반도가 2개의 섬으로 돼 있다가 BC 1300년경 연륙이 끝나 간척지가 만들어지고, 현재(완신세完新世)의 지형이 됐다